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어버린 영혼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 까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4월 27일 (토) 제 196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해도 될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이다

이 글 제목을 보고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일반 속죄(general atonement,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교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애초에 지금 제기하는 질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해진 또는 제한된 속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한다.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의미이다. 그의 구원은 아버지께서 미리 그에게 주신, 나라마다 있는 한정된(그러나 아주 많은) 숫자의 죄인에게만 해당한다(요 6:38-39).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롬 8:34).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롬 5:10).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주시지 않았다(요 17:9)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죽은 건 그의 양을 위해서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양은 아니다(요 10:11, 26).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신부는 아니다(엡 5:25; 계 19:7-8).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 없이는 예수님의 양



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지금 불신자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까다로운 질문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제한 속죄를 고수하는 목사이다. 나는 방금 요약한 주장을 믿는다. 더 나아가 나는 설교할 때나 개인적인 대화에서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이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까다로운 질문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하나님의 선택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복음 전파가 가능하겠지만, 믿지 않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건 쉽지 않다(고전 15:1-3; 딤후 1:15; 벰전 3:18).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믿지 않는 죄인이 누구인 데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속죄에 당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속죄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읽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제목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은 "안 된다. 하지만"(또는 심지어 "괜찮다. 하지만")과 같은 식으로 대답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도할 때 이 특정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조언을 제 공함으로써 이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를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경우

먼저, 이 문장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대단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라. 예를 들어, 사도행전 속 어떤 전도 설교에도 이런 구절이 들어간 사례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었다면, 이 문장을 정통 복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

<3면으로 계속>



그리스도인에게 권리는 무엇인가?

지난 3월 4일, 프랑스 의회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담은 헌법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프랑스 국민의 85퍼센트가 이를 찬성하였고, 우파의 지도자조차도 반대하지 않았다. 낙태권을 명시한 수정 헌법의 전문은 간단하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프랑스 헌법 34조). 이는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조건을 하위 법률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낙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명실상부한 낙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낙태를 권리로 정하게 된 것은 현대인의 권리에 대한 압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대인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장받고자 하는

극도의 개인주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제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개인의 철저한 파멸이라는 양자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양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권리는 일종의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를 보호하는 윤리적 가치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주의의 시작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인주의는 일종의 개인과 개인, 권리와 권리의 투쟁이 되어 버렸다. 그 중간 지대로, 대화와 타협, 보류 등과 같은 어색한 영역과 지루한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자신이 손해 볼 것이고, 현대인에게 손해란 자신이 부정당하는 살인(인격 살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부른초장 한세영 목사



신양길목 차용호 목사

3면

4면

8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OC제일장로교회 2024년 부흥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주제: 찾아오신 예수님



강사 김성국 목사

- 현) 미국 뉴욕 킨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 현)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 현) 미주크리스천신문사 발행인
- 고든콘웰 신학대학원(D.Min.)
- 고든콘웰 신학대학원(Th.M.)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 총신대학교(B.A.)

날 짜	시 간	말 씀
4.26. (금)	오후 7:30	찾아오신 예수님 (눅 19:1-10)
4.27. (토)	오전 6:00	기도의 길 (막 14:32-42)
	오후 7:30	꿈 너머 꿈 (창 50:19-26)
4.28. (주일)	오후 7:45 (1부)	예수를 위하여 (요 12:1-8)
	오전 9:30 (2-3부연합예배)	

문의: (714) 899-9191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발행인 칼럼

경관(景觀)과 풍경(風景)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경관(景觀/view)과 풍경(風景/landscape)은 서로 교환해 쓰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전자(前者)는 어떤 객관적인 모습을 지칭하고, 후자(後者)는 어떤 경관의 배경까지 살피면서 주관적, 예술적 감각으로 바라볼 때 사용한다. 풍경화(風景畵)는 있어도 경관화(景觀畵)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두 단어에 대해 무감각했는데 얼마 전 맨해튼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 & 뮤지엄"을 방문했다가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한 글을 보고 목상하게 되었다. 그 장소에는 많은 작품들이 수집, 전시되고 있었는데 멋진 경관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었고 좋은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멋진 경관을 찾는다. 평소는 같아도 경관이 멋진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가격은 현격(懸隔)한 차이가 있다. 풍경이 좋다는 것은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 풍경은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더 넓은 배경까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웅장함이 있다.

이런 글을 읽었다. 제자 두 명이 스승을 찾아 왔다. 오랫동안 함께 공부를 한 두 제자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스승의 곁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스승은 두 제자 앞에 하얀 종이를 꺼내어 그 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한 명은 점이 보인다고 대답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흰 종이가 보인다고 대답했다. 스승은 흰 종이가 보인다고 대답한 제자에게는 떠나도록 허락했지만 점이 보인다고 대답한 제자에게는 공부를 더 할 것을 명령하며 이 말을 덧붙였다. "공부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훈련인거야." 경관을 넘어 풍경을 보는 훈련에 대한 글이라고 이해했다.

며칠 전 안과(眼科)를 다녀왔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눈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다시 느낀 시간이었다. 안과에서 눈의 문제를 아무리 잘 해결한다 하여도 사람의 시각이 불안정한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보기는 보아도 무엇을 보았는지 가물가물하다. 보기는 보아도 무엇이 진실인지는 잘 모른다. 물리적인 시각에서도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다. 예수님께서도 눈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 6:22-23) 영적인 눈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엉뚱하게 악하다고 말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므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 20:15) 육신의 눈에 문제가 있으면 안과를 가면 되는데 영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영적인 눈의 치유는 마음에 달려있다. 영의 눈도 좁은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경관만 보는 눈이 있고, 넓은 마음으로 넓게 풍경을 지 보는 눈이 있다.

필자는 안경이 세 개이다. 일반 안경, 돋보기 그리고 선글라스이다. 밖에서 꺼던 선글라스를 그대로 끼고 점잖은 실내에 들어간 적도 있다. 내 눈에 안경이 문 제건만 왜 이리 실내가 어둡지 하면서 한 동안 어리둥절한 적도 있었다. 영적 경 관만이 아닌 영적 풍경까지 볼 수 있는 안경이 내게 진실히 필요하다. "청결한 마음"의 안경이.

벌레 같은,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걸맞은 더 높은 소명을 향해서



2011년, 오랫동안 사랑받던 토코쇼 '오프라'의 마지막 편을 보면서 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진행자의 존재와 그녀가 미국 생활에 끼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목격했다. 그날 가장 강하게 내 인상에 남은 장면은 그녀가 시청자와 팬에게 남긴 권고였다. 당신은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계속해서 이 문장을 주문처럼 반복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이며, 인스타그램 현장, TV, 영화, 비공개 및 공개된 대화에 쉬지 않고 등장하며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 강한 자존감의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치료 문화의 일부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을 반복해서 또 충분히 들을 때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받는 축복이 과분하다고 느끼는 부적절함을, 또는 여간해서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까지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하거나 아니면 벌레인가?

신학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언하는 수많은 찬양에 익숙한 신자라면 쉬지 않고 서로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은혜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게 아닌가?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자신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눅 15:21)는 탕자의 고백이다. 또 다른 비유는 충실한 사람들을 "자격 없는 종들"로 묘사한다(눅 7:7-10).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고전 15:9)고 주장했다. 공동기도서가 드러내는 우리의 역할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의 식탁에 다가갈 수 있는, "합당치 않은 죄인"이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많은 찬송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 사이의 깊은 협곡을 강조한다. 존 뉴턴은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를 "감미로운 소리"(sweet sound)라 생각했는데, 그건 은혜가 비참한 자기(a wretch)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이사악 와츠(Isaac Watts)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라며 감격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의 위대한 삼위일체 찬송인 "아버지, 아들, 성령"은 신자의 고백 ("나 같이 불쌍한 벌레")과 거룩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당신의 큰 영광이 살아나기를 원 하나이다")을 병치시킨다. 이 찬송은 시편 기자의 절망(시 22:6)과 빌닷이 읊에게 한 연설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인간의 죽음과 유한성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벌레와 구더기를

사용했다(욥 25장).

인간 죄성의 파라독스

말씀과 찬양에서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려는 유혹에 대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의 수정이 단지 "벌레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반대편에 원죄라는 역설 속에서 힘을 잃도록 만드는, 인류를 타락시키는 또 하나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다.

성경은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가르친다. (1) 우리는 내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엄청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다. (2) 우리는 비천한 죄인이고 따라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인간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은혜는 당연한 결과가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면 회개는 불필요하다. 당신처럼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반면에 인간의 타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은혜가 무력해진다. 벌레에 불과한 나는 결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면 회개가 불가능하다. 나 같은 놈한테 굳이 하나님이 왜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그러나 성경이 드러내는 인간의 초상화는 훨씬 더 설득력 있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성경·찬송가 | 기독교의 모든 것 | 일반서적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주석, 설교, 기독교사전들 시리즈 전집류 재고 특가세일 권장 \$7

축
제29회 미주 대한신학대학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신교단 설립 63주년 기념식 / 제4회 평양(Chi Syun)신학대학 졸업 및 학위수여식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신 교단 직영 신학으로 승격된 미주 대한신학대학, 제4회 평양(Chi Syun) 신학대학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2024년 5월 15일(수) 오후 4시
장소 벨엘 장로교회(857 S. La Brea Bl, Los Angeles, CA 90036)
설교 이은규 총장(제7대 안양대학 총장, 현 미주 대한신학대학 총장)
초청인 이은규 박사(미주 대한신학대학 총장) / 류당열 목사(재단 이사장) / 이의원 박사(명예총장)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1면에서 계속)
둘째, 분명히 회개하고 믿을 때까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불신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도 그렇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불신자가 자신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까지도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라고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까지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 놀랍게도 나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요한일서 2:2이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즉, 진노를 없애는 희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 그리고 그 제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진

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3:36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에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와 완전히 모순된다.
믿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불신자를 향해서 진노하신다. 사실상, 그분의 사랑이 단순한 감상적 사랑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를 전도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첫째, 그 말을 하면서 전도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화내지 말라. 비록 그들이 제한 속죄는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이런 의미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건 당신이 그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당신도 동의하지 않는가?

둘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사도들보다 더 조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성경보다 더 신중하다면, 칼빈주의야말로 전도를 죽인다는 흑자의 우

려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불신자에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전도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호소를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비록 "알미나우스주의"처럼 들리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상 찰스 스펄전 만큼 제한 속죄를 확고하게 받아들인 설교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를 향해 무척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는 하이퍼 칼빈 주의자들로부터 자주 공격받았다. 그것은 스펄전의 목표가 결코 강성 칼빈 주의자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복음은 경고인 동시에 구약이다. 젊은 개혁과 설교자들로부터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질문은 받은 D. A. 카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안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죄에 대한 확신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뿐,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진실이 필요하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준비와 의지가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뿐이다. 사랑은 큰 매력이다. 복음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군가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좋은 소식'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롬 2:4).

by Justin Dillehay, TGC

시론

신앙고백과 현실 사이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개신교 대부분의 교단이 사용하는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한다. 영어로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이다. 영어로 하면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기에 더욱 신앙고백의 의미가 강하게 와 닿는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을 쓰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7절)라고 자기의 결심을 외쳤다. 이것 역시 일종의 신앙고백이다. 어려운 상황이 끝도 없이 이어질 때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렇게 신앙고백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의 경우, 매 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한다. 또한 교인들에게 대표기도를 하는 시간이나 개인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신앙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권면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바쁘다. 이런 식의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며 지니를 불러내어 이것저것 주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믿는 바를 그분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먼저 나의 결심을 밝히는 셈이 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신 사실 앞에 감격하며 그 영광스러움을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먼저 자신의 신앙고백을 드리는 것이 대표기도나 개인기도의 적절한 순서다.

그다음으로는, 기다려야 한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의 신앙고백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나의 도끼날을 갈아야 한다. "도끼날을 갈지 않아 날이 무디면 그만큼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도끼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전10:10, 현대인의 성경). 도끼날을 갈지 않고 나무를 자르면 힘은 더 들지만, 효과는 그와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고백대로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의 도끼날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를 대비하면서 나의 도끼날을 최선을 다해 갈아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감동적인 간증집을 펴낸 코리 텐 봄 여사는 2차 대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네덜란드에서 시계점을 운영하였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집과 이 일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은신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산으로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된 아이를 품에 안은 유대인 산모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울어대는 어린 아기를 어떻게 숨겨준단 말인가?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코리가 보기에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인근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였다. 하지만 그 목사에게 이 가족을 데려가 숨겨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냉정하게 거절하며, 이런 일은 불법이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며, 유대인 아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는 없다고 매몰차게 썩 붙였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코리의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신앙고백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신앙고백대로 현실에서 살려고 하면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에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minkyungyob@gmail.com

벌레 같은, 그리고 소중한...

(2면에서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인류의 완전한 죄성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발견한다.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진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함과 가치, 그리고 우리를 아예 구원받을 자격이 없도록 만드는 죄의 만연함을 같이 강조해야 한다.

저주받은 그리고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 버전의 미국 민속 종교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죄를 조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의 신성한 존재, 우주의 중심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실수에 대한 더 극단적인 반응은 인간이 하

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을 단지 절망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래서 한 동안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에 불과하다고 상상하게 만든다. 성경이 그리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대단히 가치 있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신격화한 상태에 빠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를 항상 가치 없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타락한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둘 다이다. 우리는 비참하지만 동시에 위대하다. 우리는 미녀와 야수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비참함이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위대한 영주의 비참함, 쫓겨난 왕의 비참함이다." 피터 크리프트(Peter Kreeft)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는 우리

가 상상하는 것보다 형이상학적으로는 더 나은 존재지만, 도덕적으로는 더 나쁘다."

존 스토틀는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은 선과 악, 영광과 수치,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다. ...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지만, 타락했고 반항하기에 천성적 죄성을 가진 지킬이요 하이드, 선과 악이 마구 뒤섞인 악동이다. 나는 고귀하면서도 천하고, 아름답지만 추하며, 선하면서도 악하고, 정직하면서도 비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자 마귀의 종이다. 나의 진정한 자아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모습이다. 나의 죄악된 자아는 타락으로 인한,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신 바로 그 모습이다.

두 가지 경이로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 인간의 죄 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류에 대한 지나친 긍정으로 모두에게 자기 사랑의 세례를 주는 오프라 윈프리의 자기애와 자기 가치에 대한 관점을 기독교 용어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진술과 말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 문화가 드러내는 자존감에 대한 집착을 기독교식 포장으로 위장하는 위험이 있다.

둘째, 첫 번째 거짓에 맞서는 방법이 단지 "벌레 신학"의 지나친 강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간의 죄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망각시키는 과잉 반응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악된 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걸맞은 더 높은 소명을 향해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다.

by Trevin Wax, TGC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 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영적 비타민

현대인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먹지만, 여전히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90%가 비타민 D 부족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매경 헬스, 2022년 6월) 그런데 왜 한국인은 햇빛만 쬐어도 생기는 비타민D가 부

족할까요? 요즘 한국인들은 시간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실외에 나가도 햇빛 노출을 피하려고 신체 대부분을 가립니다. 그 때문에 비타민D가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머리부터 발

끝까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BURKA)나 차도르(CHADOR) 등의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는 중동 여인들이 비타민D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비타민D가 부족하면 만성피로와 우울증, 골다공증 외에도 수면장애, 감기, 비만, 충치, 관절염, 치매, 당뇨, 심근경색, 고혈압, 각종 암, 만성 알레르기, 피부질환, 만성 두통, 이석증, 신장 질환 등등... 수많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칼슘의 흡수와 사용에 문제가 생겨서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D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비타민D 같이 필수적인 영적 비타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영적 비타민 트리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영적 비타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적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영적성숙의 과정이고, 영적성장의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신앙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영적 비타민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소망의 주체와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인 희망과는 매우 다릅니다. 믿음의 비타민을 먹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비타민을 먹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어떤 역경도 감당할

숫아오르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영적 비타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한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곳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타민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타민D 부족은 햇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영적 비타민 부족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낳고, 소망을 키우며 살 때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영적 비타민 트리오를 잊지 마세요.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을 보면,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밧단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로부터, 압복강가에서 형 에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등장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온갖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함으로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잘 하고 있는가요?

여기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는 말은 야곱이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숙곳에 머물렀던 까닭을, 첫째, 지난 20여 년간 피곤했던 밧단아람에서의 삶을 이곳에서 쉬면서 재충전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얻은 환도뼈 골절로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보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20년 이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 휴식을 갖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까요?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야곱의 말에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산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3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다음으로는 그가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성 앞에 땅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정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땅을 무려 백 크시타에 샀는데, 혹자는 1크시타를 새끼 양 한 마리로 봅니다. 그는 백 마리

새끼 양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큰 땅을 샀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34장

을 보면,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을 방문했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그 형제들이 세겜 사람을 죽이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의 무지와 연약함에서 비롯된 실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직은 잘 몰라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로 인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족속들로부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아직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지는데, 이런 실수와 허물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어 실수한다 해도, 괜찮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데, 그러나 35장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엘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성도의 인생은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무지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창세기 33:18-20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아우 야벳을 죽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인의 책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내 책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 책임을 돌아보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실수와 시련을 허용하실까요? 1)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28 장 베엘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바와 같이, 베엘로 갔어야 했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받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심지어 그가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 주변족속들로부터 쫓김을 당해 멸문지화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고 모자라 실수하고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롬 8:28)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실수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나를 도우심으로 선한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 "야곱이 베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교들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적건강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러고도 얼마든지 또다시 불순종하며 실수하고,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를 지키고자 한다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며, 더욱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집, 베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실수하고 시련을 당한다고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오늘 야곱과 같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최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하셨는데, 그러므로 꼭 그 예수 안에서 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syhan91@hotmail.com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그에게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실수와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2)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실수와 시련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허물과 실수 때문이라도, 본문의 야곱과 같이 엄청난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사한번 잘못 갔다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이 속여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단지 이사를 잘못 간 것 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요?

tk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하나님의 움직임”이 대학가에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1-

작년에 Auburn University에서 열린 부흥 집회 주최자들은 수백 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는 등 전도활동을 다른 공립 대학교로까지 지금 이 시간 확산하고 있다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토나 프리웨트는 수백 건의 세례가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진리와 희망이 굶주려 있다"고 흥분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 예로, 지난주 조지아 주에서 열린 행사에 대해 토나는 "세례를 받은 학생들의 이름과 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은 학생들이 원하는 사역이나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계속 교회에 가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토나 프리웨트는 또한 학생들이 이른 세례식 행사마다 "놀라운" 간증을 나눴다며, "자살을 고민하고 왔다가 기쁨과 목적이 가득한 채 떠난" 학생도 있고 "수년 동안 중독에 묶여 있던" 학생들이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다고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텍사스 주 와코의 해리스 크릭 침례교회(Harris Creek Baptist Church of Waco, Texas)의 목사인 Jonathan Pokluda(조나단 포클루다)는 조지아 주 모임에서 성경 교사이자 작가인 제니 앨런과 함께 연설했다고 UGA 학생신문인 더 레드 앤 블랙(The Red & Black)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조나단 목사는 월요일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젊은이들이 "카페테리아 방문과 심야 술자리의 주변부에 앉아 있는 평범한 신앙에 지쳐 있다"면서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신앙을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들은 주일에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라고 조나단 목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 보도를 걸으며 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대형 컨퍼런스에 버금가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조나단 목사는 지난해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애즈베리(Asbury University in Wilmore) 대학교에서 며칠 동안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 애즈베리 부흥회에 참석했던 경험에 대해 다음처럼 회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토나 프리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Auburn(아번)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모으라는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녀는 불과 6주 만에 농구 경기장을 확보하고, 열정적인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제니 앨런과 저를 초청해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까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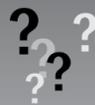
조나단 목사는 작년 Auburn에서의 경험을 설명할 때 "한 번에 빨리 얘기하고 다음 일을 하자(라면 끊어 먹는 식의 대화)"가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무려 200가지의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신중하고 깊은 대화였다"고 강조하며 얼마나 깊은 대화들이었는지, "자정이 넘어서야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확인하고 신중한 결단 아래 세례를 받았다"고 그 당시의 감동과 감격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기세는 이제 막 형성되고 있을 뿐이다. The momentum is only building.", "애즈베리(Asbury)에서 아번(Auburn),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 대학까지 이르는 정열(Passion)까지 대학생들은 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그냥 형식적인 교회나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높은 그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멋진 말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Universities are pregnant with revival." - 대학가들이 부흥을 품고 있다!!" 라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는 몇주 전에 갑자기 몸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신앙수치가 떨어져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내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 오렌지 카운티에서 H 권사

신장투석

A: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여류시인인 패트 반즈란 시인은 부활절 아침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앞에 꽃 파는 노파가 얼굴이 웃음 꽃이 피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반즈는 "그렇게 웃고 계신데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꽃 파는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나이만큼 살면 슬픈 일 가슴아픈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금요일은 끝이 아닙니다. 사흘만에 부활의 새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괴로울때는 사흘만 기다리자고 혼자서 말합니다. 사흘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은 3일의 신앙입니다. 제3일만에 부활한 주님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 고난과 절망이 와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을 때 3일을 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성도가 기도하고 3일 정도를 기다리면 두려움과 절망은 몰라갑니다. 3일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평안이 오고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수치가 떨어져 투석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신장 투석하는 사람이 7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투석을 하면 10-20년이상 생명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도 두 분이 신장투석을 하는데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영적인 부활을 주시고 육신도 새힘을 주실것입니다. 부활절에 일어난 한국의 영적 부활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전의 조선은 소망이 없는 어두움의 땅으로 국제사회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조선 땅을 인공과 미신 이사로잡고 있는 선교하기에는 매우 위험천만한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 대동강에 왔다가 배에서 내리자 칼로 목 베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 두 선교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감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조선에 파송 받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봄 비가 부슬부슬내리는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셀러가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다.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미신과 인습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조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부활절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조선은 선교사들의 기도대로 놀라운 영적 부활과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첫째, 조선 땅이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미신과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대국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church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lik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 listings.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신앙의 고급화에 젖어든 현대교회”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하게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니다.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

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면 고학력자들이 자신들의 학력과 어울리는 고급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학력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는 아

예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낮추어서 찾아 나서면 기회의 폭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신앙의 고급

화 현상이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급화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가라는 '현장 전도'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 사역을 피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보다 세련된 교회의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현장 전도와 양육은 마치 노동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전도를 가면 자신이 가진 사회적 신분도 내려놓아야 하고, 지키고 싶은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사람들의 거친 말과 태도를 소화해 내야하고, 울트라 불트라 치솟아 올라오는 분노도 가라 앉혀야 하고, 한없이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양육도 전도처럼 마치 노동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영적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복음의 진리로 양육하기 위하여 정거

으로 만나면서 양육 받는 자의 고민들을 끌어안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섬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동시에 양육 받는 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함께 호흡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진리 안에서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앙의 고급화에 아주 많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양한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 전도와 양육을 위한 영적 수고를 아낌없이 드리는 대신에 기운이 빠진 채 탁상공론하는 위치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을 영적 침체 가운데 보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표는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재정과 시설의 규모에 있지 않고 유일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종교 단체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맞습니까?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맞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교회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인격적으로 풍성히 알아 가는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신앙의 고급화에 젖어든 생각을 벗어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혼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서도 '청소년 유해도서' 시골

미국에서의 성오염(성혁명) 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동성애 찬반 논란에 이어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주별로 분화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성오염(성혁명) 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선 각 주별로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에 있는 일부 도서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 유타, 플로리다 등 10여개 주는 동성애나 노골적 성행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을 도서관 등에 비치하면 벌금이나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금지도서로 지정한 셈이다. 해당 주들은 보수적 정파인 공화당 강세 지역들이다. 인접해 있는 다른 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에선 동성애나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특정 도서를 금지도서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주들은 진보적 정파인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다.

일부 도서들에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학부모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부 논란이 되는 도서들이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학교,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들을 급서로 지정해 비치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급서 지정 요청을 받은 도서는 약 4300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진영에선 도서들에 제약을 가하는 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미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 간 이념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전형적인 성오염 논란 사례로 여겨진다. 통합국민대회 거북한방파제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은 지역적인 이슈를 넘어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라며 "여기에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성오염 위기가 내포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연합감리교회(UMC) 사상 첫 흑인 여성 감독회장 선출

미연합감리교회(UMC)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감독회장으로 선출됐다. 미국 오하이오 연회를 담당하는 트레 이시 S 말론 감독이 주인공이다. UMC는 동성애 문제를 두고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의 탈퇴가 이어져 2019년부터 최근까지 7000여 곳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전체의 4분의 1이



미연합감리교회(UMC)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감독회장으로 선출됐다.

줄어들었다.

말론 신임 감독회장은 23일 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UMC 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말론 감독회장은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CP) 인터뷰를 통해 "동료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돼 영광"이라며 "다양성을 기리려는 교회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UMC는 1960년대 복음주의연합교회와 감리교회가 통합해 이름을 바꾼 교단인데, 1736년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시작한 신앙 운동이 미주지역으로 전파된 시점을 기원으로 한다. 아프리카계 여성이 감독 회장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말론 감독회장은 "교회와 세계에서 제자도 선교 형평성 그리고 정의에 대한 헌신을 깊이 있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교회의 미션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중심에 두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주에서 목회자 부부의 딸로 태어나 시카고에서 자란 말론 감독회장은 열세 살 때부터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에선 컴퓨터과학, 종교학,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오하이오주 연합신학대학원(UTS)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UMC는 이날부터 2주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연다. 코로나 대우행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3R'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다. 동성애에 관한 제한적 언어를 없애자(Removal)는 안건과 연합감리교회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사회생활원칙 개정안(Revised Social Principles) 등이다. 동성애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전 감독회장인 토마스 버커튼 감독은 "UMC는 인간의 성 문제와 관련해 전통적 신앙관을 가진 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결혼 예식 집행과 장소 사용에 있어 개별교회의 의사와 결정 역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총회는 2019년 특별 총회에서 의결한 한시적 교단 탈퇴법에 따라 미국 내 UMC 교회의 4분의 1이 교단을 떠난 상황에서 개최돼 40년 만에 최저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축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美도 성오염 전쟁... 정부 동성애학생 보호법

미국에서 성오염(성혁명)을 둘러싼 대립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성오염 기조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와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맞불식' 반(反)성오염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기점으로 성오염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 성오염(성혁명)을 둘러싼 대립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동성애 학생 보호를 위한 '타이틀9'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학교가 성희롱을 넘어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적극 대응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맞춰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를 금지해 왔던 일부 공화당 성향의 주법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성오염 움직임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권익을 늘리는 방향이다. 동성애·양성에 커플의 자유로운 입양 허용을 지원하거나 행정부 내 주요 직책인 장관이나 차관보 등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성오염 일반도로 나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 차원의 성오염 물결에 맞서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다음 달에는 미국 기독교인 학부모 단체가 중심이 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50개주에서 금식 기도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 기도회로, 학교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오염을 막아내고 미국이 본래의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지난 13일에도 전국 각주에 있는 의사당에서 기도회가 진행된 바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 유타주 등 미국 주요 지역에선 성오염을 방지하고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자유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일명 '미국판 거북한 방파제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발효되며 현재 미국에선 50개주 가운데 24개주가 미성년자 성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성오염 정책과 일부 주법 및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성오염 운동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모습은 올 11월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플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는다"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세계랭킹 1위 골프

황제 자리에 등극한 미국 프로골퍼 스코티 셰플러(27)가 개인 통산 두 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달성한 뒤 그의 입에서 나온 신앙고백이 화제다. 그는 성경공부 모임에서 만난 캐디 테디 스콧과 부둥켜 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셰플러는 지난 14일 미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8회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 최종라운드에서 함께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하며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그린재킷을 입게 됐다. 상금은 360만 달러(49억 8600만원)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있는 셰플러는 대회 기간 내내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는 "조산의 낌새는 보이지 않지만 출산이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 만큼 아내의 산통이 시작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곧장 아내의 곁으로 달려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강풍으로 타 선수들이 어려워한 1, 2라운드에서도 각각 6언더파, 이븐파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경기력과 집중력을 선보였다.

압권은 그의 우승 소감이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계획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리스

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도 언급했다. 셰플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라며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셰플러는 2022년에도 비슷한 신앙고백으로 우승소감을 밝힌 적 있다.

셰플러의 신앙고백에 미 교계도 감동하는 분위기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셰플러의 우승 소감을 나누며 "셰플러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노숙 금지는 위헌인가?" ... 곧 美대법원 판결 나온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소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CBS 방송과 AP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소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인구 4만명 소도시 그랜츠페이스시의 노숙자 3명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그랜츠페이스에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95달러(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규정 위반이 적발될 시 30일간 공원 접근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공원에서 다시 야영을 하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돼 최대 30일의 징역과 1250달러(약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숙자들은 이 규정이 과도한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제8조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하고 있다. 이에 그랜츠페이스 시 측은 법원에 당국이 이 규정을 '적절하게' 집행해왔다고 맞섰다. 또 그랜츠페이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집이 없다는 상태"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 구금이나 법 집행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시의 규정에 따르면 노숙자들은 실제로 잘 곳이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면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이후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 법원에서도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 측은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노숙자 문제와 맞물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지 집값이 폭등하고 코로나19 유행기에 지극히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미국인들이 급증한 상황이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노숙인은 2022년 대비 12% 급증해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에는 노숙인이 약 65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II. 폴 틸리히의 존재의 신학 (Theology of Being) (2)

폴 틸리히에게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의 상징이다. 틸리히는 “궁극적인 관심”에서 “상징 언어만이 궁극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한다(ultimate concern must be expressed symbolically “because symbolic language alone is able to express the ultimate”). 그리고 틸리히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상징의 역할을 한다” (God functions as the most fundamental symbol for ultimate concern) 했다.

틸리히에게 신은 존재의 기반 (the ground of being)이며, 그리고 존재 구조의 기반(the ground of the structure of being)이다. 틸리히의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유신론이 아니라, 초월적 유신론 (transcendent theism)이며, 틸리히의 신은 “신 너머 신이다” (God ‘beyond’ theism). 틸리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무신론적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는 존재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Being itself transcends existence). (Harvie M. Conn, op. cit., p.89).

폴 틸리히는 성경을 실존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재해석했다. 특히 그의 3권으로 된 <조직신학>에서 자기의 신학 체계를 세우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기초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며, 죄는 소외(疏外, estrangement)이며, 죄는 하나님, 자기, 이웃으로부터 분리로 규정한다(The Essential Tillich,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pp 165-166). 이 모든 개념은 실존주의 철학을 의존한다. 그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죄의 개념

은 현대의 생활에 긴장만을 초래했다고 정통적인 죄의 개념을 비판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죄에 대한 진정한 정의는 우리 존재의 기반에서 소외 또는 소원해지는 것이다 했다. 실존적 소외는 인간에게 죽음의 두려움, 죄책감, 무의미와 절망을 가져다 준다.

틸리히는 인간이 율법, 금욕, 신비, 경건 등을 통하여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실패했다. 실존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존재에 의해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틸리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소외 또는 소원해진 것의 극복됨의 상징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려는 모든 소외의 세력이 그 안에서 소멸된 “새로운 존재”(The New Being)의 상징이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자기 존재의 영원한 기반에 투명하게(transparently) 되어 하나님을 계시했으며, 본질과 실존 사이의 분열이 극복된 존재인 새로운 존재의 지참자(bearer)이다. 그는 그 자신으로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존재로 옮겨지는 전달체이다. 이러한 틸리히의 기독교론은 역사적 중요한 교린 예수의 선재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등을 부인한다.

폴 틸리히의 은혜의 개념은 “너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음성처럼, 우리 삶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며”, (Grace breaks into the darkness of our lives as if a voice were saying “you are accepted just as you are.”)이며, 그리고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것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자기 긍정”으로 설명한다. (“self-affirmation...which presupposes participation in something which transcends the self.”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Yale University Press; July

2000, p. 165)).

이러한 틸리히의 신학에 대한 바야론 교수의 비판은 “틸리히는 ‘신’에 관하여 말할 때 ‘존재 (Being)’ 라는 철학적 개념 때문에, 인격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철학적 허구 속에서 배회하였고, 그의 기독교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존재 (New Being)이라는 철학적 개념 때문에 역사적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철학적 허구 속에서 갈팡질팡했다” 바르게 평가하였다.

틸리히에 대해 로버트 레이몬드 (Robert Reymond) 교수는 이렇게 비평했다. “틸리히의 기독교론은 나사렛 예수를 단순한 인간 수준으로 격하시켜, 그리스도를 인간의 예배의 대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틸리히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존재 (Being)라기보다, 그리스도가 되어가는(Becoming)자로 이해한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다”(Robert Reymond, Jesus Divine Messiah: The New and Old Testament Witness, Mentor; Revised edition, 2001).

김의환 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가 상징으로 간주될 때, 신(神)도 아니며, 새 존재도 아니다. 다만 새 존재의 지참자(bearer)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가 될 수 없고, 다만 절대적이며 우주적 종교를 향한 증거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틸리히의 그리스도관은 “헌 두교인이나 불교도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물 탄, 맛 잃은” 그리스도관이다 (현대신학 개설, 개혁주의 신학협회).

틸리히의 구원론은 “사람은 어떻게 존재로부터 소외의 극복에 참여하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전통적인 해답인 중생, 칭의, 그리고 성화의 개념은 틸리히에 의해 재해석된다. 중생은 새 존재를 가져오는 자이신 예수 안에 나타난 새로운 현실 속으로 끌

려 들어온 상태가 된다. 칭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행위가 아닌 인간이 자신의 여러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었음을 표시하는 상징어이다. 성화도 새 존재의 능력이 교회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인격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재규정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 존재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과 모든 존재의 기반에 대한 추구의 해답이 된다.

로버트 레이몬드 교수에 의하면, “틸리히의 구원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실존적 체함을 묘사하기 위해, 칭의 혹은 성화와 같은 성경적 용어들이 상징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그가 근본적으로 도달하게 된 결론은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을 명상함으로써 인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각성케 하는 것이다. 틸리히의 방법론과 대답을 적용시키면 마하트마 간디나 석가모니의 생애와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꼭 같은 구원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Robert Reymond, op. cit.)

케넷 하밀톤(Kenneth Hamilton)은 틸리히의 신학을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유연하고 정확하며 백과사전적이며 굉장히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작품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을 신지학적(神知學的) 존재론적 사색으로 해석한 것이다.” (Kenneth Hamilton, The System and The Gospel A Critique of Paul Tillich, Franklin Classics, 2018).

4) 상관관계 방법 (method of correlation)

틸리히에게 인간의 삶으로서의 문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수용해야 할 인간은 “유한”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다. 유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연구하며, 다양한 학문,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등에서 인간의 상황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는 문화속에는 인간의 실존적 물음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틸리히에게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전제가 있다.

틸리히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에서 상관성의 방법, 즉 실존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대답의 상호의존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했다. 서론에서 그는 신학 방법론, 즉 상황과 케리그마의 대화 방법론을 제시한 후, 본론에서 이성(질문)과 계시(대답), 존재(질문)와 하나님(대답), 실존(질문)과 그리스도(대답), 삶(질문)과 성령(대답), 역사(질문)와 하나님의 나라(대답)를 변증법적으로 상관

시켰다. 그는 “실존적인 질문을 통해 인간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로 대답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틸리히의 신학의 기초의 두개의 극(pole)은 메시지와 상황이다. 신학은 항상 이 양자 중 어느 하나를 희생시킴으로써 균형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

“초자연주의적”인 방법은 메시지를 강조한 나머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방법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불만을 무시한다. 바로 바르트적인 신정통주의 신학이 그러한 예이다.

“자연주의적” 방법은 첫 번째와는 반대로 상황을 강조한 나머지 메시지를 희생시킨다. 이 방법은 신학적인 대답을 자연적인 인간 상태에서 끌어온다. 바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한 예이다.

“이원론적인” 방법은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을 이용하여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아 보려고 하며, 대답을 질문의 형태에서 유출해 내려고 한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Thomism)이 그러한 예이다.

틸리히의 상관성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며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현대의 상황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틸리히의 상관성의 방법에 대하여, 조지 토마스(George F. Thomas)는 다음과 같은 올바른 비평을 내리고 있다. “틸리히의 상호연관의 방법은 그가 인간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법(Theonomy)에 뿌리를 두지 않고, 인간의 자율(autonomy)을 철학에다 적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문제와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한다.

토마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 상관성의 방법을 통해 틸리히가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틸리히의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being)도 아니며, 인격(person)도 아닌 신(神)이다.

로버트 레이몬드(Robert L. Reymond) 교수는 이렇게 비판한다. “틸리히는 실제로 성경이나, 기독교의 신앙에 귀를 기울여 본 일이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의 사건들을 언급한 곳에는 항상 완전히 상징적으로 재해석하였고, 그렇지 아니면 기독교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비인격적인 철학으로 다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773)8021112 estross@yahoo.com 6050 Kirby Rd. Little Rock, AR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215)845-1512, Fax.(215)845-206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6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센터빌인안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703)579-9235,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VA 20152</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501)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승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215)452-0288, Fax.(215)45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만</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리본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254)6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703)941-4447, www.mcccov.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253)536-6675, www.laconc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 한인장로교회)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Think of the Grace you have Received)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Jesus Performed Miracles)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동반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권능과 이적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요, 사인입니다. (요 6:14)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막상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은혜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People who Receive Grace but do not Know Grace)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 11:20) 그 대표적인 지역이 "고라신과 벳새다"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이곳 벳새다 출신입니다. (요 1:44) 5병 2어의 기적으로 유명한 곳이 "벳새다"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 9:10)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장소도 "벳새다"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8:22)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쳐주셨던 곳도 "벳새다"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 은혜를 받았던 곳이 "벳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벳새다" 지역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끌어들이고 "고라신과 벳새다" 지역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마 11:21) "시돈"하면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에서 섬겼던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퍼트렸던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

의 도성이었습니다. (왕상 16:31) 그렇지만 이런 악한 도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권능을 베푸셨다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책망하신 또 하나 다른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마 11:23)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본 동네"(The Town of Jesus)로 불리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마 9:1) "가버나움"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장소입니다. (마 8:5)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마 8:14)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마 9:6)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가버나움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마 9:22) 또한 회당장의 죽은 딸을 가버나움에서 살리셨습니다. (마 9:25)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발달하고 번화하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유명한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워싱턴과 뉴욕 같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엄청난 특권을 누린 곳입니다. 주님의 기이한 권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잘 믿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교만의 머리를 하늘로 쳐들었습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교만함을 소돔을 끌어들이게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의 "두로와 시돈"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

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였으리라 것입니다.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교만하였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비해 차라리 아무 이적도 보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덜 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Unrepentant Person)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상응하는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새다"가 그런 곳이고 "가버나움"이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많이 본 만큼 주님의 기대도 크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눅 12:48) 받은 만큼 내놓지 못하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받아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삼시다 (Let us Live with Gratitude for Grace)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 찬양하며 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모테에서 조성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갈 1:15). 예수님 당시에 "고라신과 벳새다", "가버나움"이 주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지역이라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우리

가 사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워진 지 400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아예 국가를 세울 때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만큼 길거리에서, 지하철 안에서, 노방전도, 축조전도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도는 동네 각 주마다 Church Road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만큼 24시간 라디오, TV로, 인터넷으로 선교 방송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없습니다. 성경책이 미국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미국이 옛 "고라신과 벳새다", "가버나움"처럼 회개하지 않다가 주님으로부터 회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가 버림받고 황폐화되거나 지도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같은 도시는 심판 받고 없어졌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셨던 "가버나움"도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은혜받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죄를 회개하고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8) 고령화시대의 싱글들

거리도 멀고 시간에 쫓기는 몇몇 분과는 가끔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는데 얼마 전 다음과 같은 통화를 나눴습니다. 집 전체 해충 소독을 한 후 잦은 비로 창문을 충분히 열지 못하니 환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던 중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혈압 수치가 치솟아 병원에 가야겠다고 이틀밤을 보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일단 퇴원했다고 합니다. 타주에서 살고있는 자녀에게 연락하니, 일 못할 때 태백할 수 있는 (disability) 보험의 유무에 대해 묻자 극심한 어지럼증이 더 해졌고 형제들 역시도 건강으로, 그것도 잠시 들린다는, 섭섭함으로 가득찬 내용이었는데, 바로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싱글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도울 수 있는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병원오갈 때, 택시대신에 운전이 자유로운 남자 멤버가 해주면 어떻까하고 잠시 떠올렸지만 답은 아닌 것 같았고 장수시대에 대비한 싱글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았습니다. 위의 내용의 경우, 자녀에 대한 섭섭함 대신에,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기에 실질적으로 생활비에 관련된 보험에 대해 몰랐던 거고 또 어린 자녀를 돌보며 맞벌이 하는 만큼 비행기를 타고 쫓아 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제분들 또한 60, 70대에 들면서 가족수는 줄어가고 90대 후반의 노모에 대해 늘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연소한 동생의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거지요. 결국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홀로 서는 훈련을 강화하는 것일텐데요, 이때 행여라도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라며 쏟아내고 그들 역시도 '아빠 혹은 엄마없이 크게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다면 서로의 아픔에 불붙이는 계기가 되어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균수명이 현재 80세에서 100세가 된다고 하는 만큼 60세가 되어도 40세의 건강이라면 더할 나위 없건만 60대에 들면서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할 때, 자식이나 친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배우자라고들 말합니다. '평생웬수' (어느 코메디 프로에서 '남편'을 지칭했던 말) 일지라도 병원갈 때 운전은 해줄 텐데 하며 서러워하다가 후시나 '어디 가서 짝을 찾아...' 하는 싱글 여성이 있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새 배우자의 도움을 받기까지는 끝없는 수발을 해야될 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겠지요. 한번은 한가로운 거리를 운전하던 중 주위의 차들이 경적을 요란하게 누르기에 눈여겨 보니 신호등 바로 앞의 차가 움직이지 않았고 운전자는 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은 해로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정작 위태로운 순간을 홀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돌보아주시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 손에 생사복을 맡기는 것만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부모 모임 인도자께서는 불확실한 노후에 대해 염려하는 싱글분들께 하나님만이 열쇠를 쥐고 계신 것을 상기시키며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A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단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양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회서신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역차별

지난 월요일(4월 15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여학생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리건 주 전역에서 여고생 육상선수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여고생 육상대회에서 참가해 압도적인

질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 남학생은 맥다니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에이든 켈리거라는 남학생입니다. 켈리거는 여자 육상 200미터 경기에서 다른 여자 선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결승선을 빨리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 선수들은 켈리거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 7-8초 후에야 결승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학부모들이 불공정한 경기라며 항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런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난 후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리건 주 학교 활동협회 정책에 따라 학생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 교육법상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하면 그에 맞게 대우를 해야 한다니 역차별도 상식을 뛰어넘고,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뉴욕포스트는 15일자 신문을 통해 트랜스젠더 남학생 육상선수가 여자 선수와 겨루어 다른 선수들을 가볍게 지나쳐 질주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항의를 해보지만 주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더 분노를 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육상경기 등에서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이 가슴을 아릿하게 합니다. 한 X 이용자는 "학교가 소녀 행세를 하는 소년의 망상을 충족시키려다 여고생들의 꿈을 훔쳤다"고 비판을 했지만 역차별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오리건 주에서 주최한 여학생 육상대회에 자신의 딸이 출전했다고 밝힌 한 부모는 "어떻게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냐"며 "학생들은 경기에 참가하고자 오리건주 전역에서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의 성 정체성 회복, 학부모의 권리 회복,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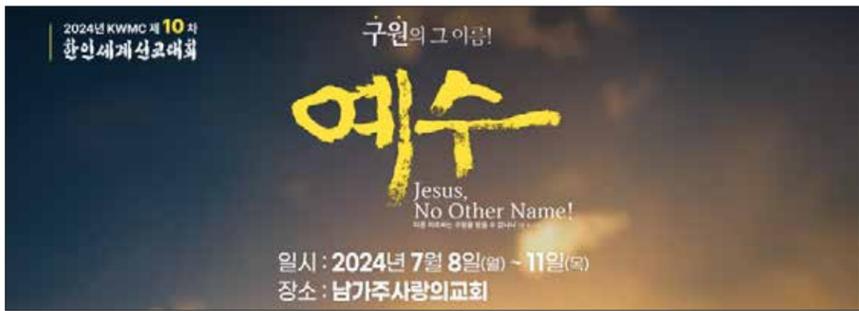
한 청원서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이 서명 운동에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려는 "발의안 ACR 99" 역시 상원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 있는 법안도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1:26-27).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cefyeo@hanmail.net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7월 8일-11일 남가주사랑의교회서

“선교대회 통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KWMC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가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선교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자, '예수, 구원의 그 이름! JESUS, No Other Name!'을 주제로 한 제10차 한인세계선교 대회를 KWMC 주관으로 2024년 7월8일부터 11일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다.

KWMC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교회는 선교의 심장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선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가 선교대회를 통하여 교회의 획

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교회가 선교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선교의 주역이 될 MK, PK를 포함한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는데, MZ세대 등록비는 \$300로, 숙박비가 포함됐다. 한편 KWMC는 대회 이후, 선교사들을 교회로 초청해 특별 선교주강을 실시해서, 모든 교회가 선교의 모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했으며, 미주 한인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현황을 조사

하고, 선교지에서 귀국하여 소천된 선교사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작업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이번 선교대회 참여는 교회의 선교적 전환, 협력선교의 실현, 네트워크 확장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회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참가를 위한 등록은 4월 30일이며, 등록비는 \$300. (4/30 이후 인상 대회 자료와 식사비 포함) 자세한 것은 (714)603-719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KWMC)

그리스도인에게 권리는 무엇인가..

(1면에서 계속)

우리는 이렇듯 권리 총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화보다는 권리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영역 표시의 동물적인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다. 권리는 확대되고 있지만, 권리의 의미와 명예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 프랑스 의회의 낙태권 수정 헌법 통과를 반대한 프랑스 상원 의장인 제라르 라르셰는 프

집을 수리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오토바이를 탄 한 사람이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돈을 달라고 했다. 그는 마당에서 일을 도와준 고용된 일꾼이었다.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가 고작 하루치 돈을 받지 못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40만 원도 되지 않는 사례금을 몇 달 동안 받지 못하고 밤만

된다. 나는 낮아지려고 그 산속으로 온 것인데, 그곳에서 나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당신의 고용자라고 소리 높여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는 모두 당연한 권리라 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 이름을 포기 할 때만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름 없는 자의 정체성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라는 것



랑스의 헌법이 "사회권의 카탈로그"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전시하고 항목을 선전하는 카탈로그라는 것이다. 이렇듯 권리의

먹으면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소리치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화

이다. 나는 내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빌려 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내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데님데이를 맞이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KFAM 스태프들의 모습

KFAM 데님 데이 캠페인 참여

“성폭력에 맞서 함께 일어서다”

4월 24일 데님데이를 맞아,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엄)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데님 데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매년 사람들이 데님을 입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존자들을 지지하도록 한다는 것. 데님 데이를 맞이하여, KFAM은 모든 직원이 데님을 입고 출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과 생존자 지지의 의미를 담은 동시에, 사회 내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이와 더불어, KFAM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성폭력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작은 선물이 담긴 구디백을 나

누어 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선물들은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데님 데이의 기원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간 사건의 유죄판결을 뒤집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타이프 한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행위에 동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이탈리아 의회 여성 의원들은 피해자와 연대의 의미로 직장에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이후 데님 데이에 청바지를 입는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에 대한 항

의 상징이 되었다. 미국 내 아시아 여성의 최대 55%가 평생 동안 어떤 형태의 물리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여전히 가장 신고 되지 않는 범죄 중 하나이다.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회가 피해자의 상황이나 옷차림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KFAM은 이러한 해로운 태도에 도전하고 생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서린 엄 소장은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활성화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며, 생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님 데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모두가 이 캠페인에 동참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FAM의 이번 데님 데이 캠페인 참여는 성폭력 인식 증진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홍보 담당 노혜나 (직통: 213-235-4856)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 이름을 포기 할 때만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전시장이 되어 버린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는 과연 세상에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

나는 이십 대 후반에, 바다가 인접한 산골짜기의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인생을 살 것이라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도와 독서로 시작하는 하루와 노동이 어우러진 삶은 이상적으로 보였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되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찾아왔고, 우리의 터전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었다. 공동체 사람들은 재산을 피해 도망쳤고, 전기는 끊겼으며, 차길 위에는 어느 산에서 굴러왔는지 알 수 없는 커다란 바위가 피난 길을 막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새벽 6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삼과 곡괭이를 들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노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서야 마당의 흙과 바위를 치우고,

를 냈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득 그때의 일이 20년이 지난 지금 떠올랐다. 그때의 공기와 온도, 분위기가 모두 생각났다. 아마도 그 이유는 지난 주일,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아직도 내 안에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토요일 오후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 주일 설교가 어려우니 주일 1, 2부 설교를 부탁한다고 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나에게까지 연락했을까 하여,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 설교는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닌 나에게 하야 설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의 내용이 아직도 내 안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누가복음 14:11).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이 후회

여전히 나는 나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 권리의 전전터에 참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고 싶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권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난 할 말이 없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의 권리 아래 폭력에 희생당할 때,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역설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6-8).

by 이준성, TGC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베델교회 창립 47주년 감사예배 및 취임예배
 뉴욕베델교회는 창립 4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 및 신성근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4월 28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갖는다.

▲ 문의: 718-796-5600

영생장로교회, 선교후원음악회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5월 5일(주일) 오후 4시 선교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5-542-0288

리폼드 총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특별세미나
 리폼드 총회신학대학교 대학원(총장 김용익 박사)은 5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은혜주교회(담임 노영민 목사)에서 정성구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존 칼빈의 종교 개혁과 신학 및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과 신학'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310-7062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연합체육대회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5월 13일(월) 오전 8시 Frank Golden Park에서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 문의: 646-772-5947, 201-675-9591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 모집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창원)은 2024년 미국지역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4월 22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이며 장학금액은 최우수 장학생 5,000불(2명 내외), 우수장학생 3000불(4명 내외), 일반장학생 1인당 1,500불 (58명 내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뉴욕한국교육원 홈페이지(www.kecn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nykoredu@mofa.go.kr, 646-674-6022

패밀리터치, 무료 온라인 멘토링 프로 참가자 모집
 패밀리터치는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3~6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Zoom) 무료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 'Big Life Journal for Kids'는 별도로 구매(27달러)해야 한다.

▲ 문의: ftyouth@familytouchusa.org

뉴저지초대교회, 선교바자회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5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관 주차장에서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박유정 집사 201-674-9784

필그림선교회, 새꿈대학 개강
 필그림선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새꿈대학이 5월 16일(목) 개강을 앞두고 등록을 받는다.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며 등록비는 100불이다.

▲ 문의: 201-315-8242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5월 25일(토) 소바자회, 6월 1일(토) 대바자회로 2024년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886-4040



영생장로교회 특별집회 우측 마크 존스 목사, 좌측 정승환 목사

영생장로교회, 마크 존스 목사 초청 특별집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4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마크 존스 목사('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저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특별집회를 가졌다. 모든 집회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담임 정승환 목사가 실시간 통역을 했다.

3일 동안 진행된 특별집회는 '낮아짐과 높아짐' (빌립보서 2:5-11), '주를 바라봄' (골로새서 1:16),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눅 23:39-43)로 이어졌다.

마지막 집회에서 마크 존스 목사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눅 23:39-43)' 제목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행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또 다른 행악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의 개인적 간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행위이다"라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

에 매달려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피 묻은 옷을 본 상황에서 예수님이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인가. 이것은 기적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 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크존스는 밴쿠버 페이스 개혁장로교회 목사이며 프리스테이트 대학교 신학부 연구 교수이다. 그의 저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정교도 신학의 모든 것」, 「마크 존스의 선서와 상급」 등이 있다.

영생장로교회는 마크존스 목사의 저서 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용하여 2024년 모든 구역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박근재 목사 부부(오른쪽)와 윤양필 목사 부부(왼쪽)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시나브로교회, 설립 16주년 기념 예배

박근재 목사 은퇴, 윤양필 담임목사 취임

뉴저지 시나브로교회는 4월 7일(주일) 오후 5시, 설립 16주년을 기념하며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예배를 드렸다. 교회를 설립한 박근재 목사는 은퇴했으며, 윤양필 목사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1부 은퇴감사예배는 박지우 목사(러브뉴저지 운영위원장)의 찬양 인도로 시작되어, 뉴저지 방주교회 오범준 목사(러브뉴저지 기도분과 위원장)의 대표기도, 김영삼 목사(뉴저지침례교지방회 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영삼 목사는 "불멸의 지체(요한복음 15:5)"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박근재 목사님은 16년간 오직 주님과 연합해 살아왔고, 그 결실로 시나브로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대원(ATS) 동문들의 모임인 'Challenge21' 목사들의 헌금 특송과 김흥식 장로(시나브로교회)의 헌금 기도, 그리고 노순구 목사(뉴저지침례교지방회 총무)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취임식에서 박근재 목

사의 이임과 윤양필 목사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박근재 목사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65세 은퇴를 지킬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개척 때부터 이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고 고백했다. 이어 윤양필 신임 담임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16년간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 박근재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라: 김재상 기자)

담대한교회, 설립감사예배 드려

“일어나라, 건너가라” 뉴욕 맨하탄에 교회 개척

담대한교회(담임 허장길 목사) 설립감사예배가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노회장 임영건 목사) 주관 아래 4월 21일(주일) 오후 6시에 뉴욕 맨하탄 22가에 위치한 담대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인도 허장길 목사, 대표기도 정인수 목사(서기), 성경봉독 차상남 장로(회계), 특별찬양 퀸즈장로교회 김스콰이어(지휘 이진재 집사), 설교 김성국 목사(KAPC 총회장)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일어나 건너가라(여호수아 1:1-6)"를 제목으로 한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듯이 허장길 목사를 통하여 맨하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허 목사는 퀸즈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동안에도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할 곳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맨하탄으로 불러 주셔서 담대한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라고 전했다.

허장길 목사는 설립경과보고를 통해 2월에 첫 주일예배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주일 예배 매주일 오후 6시, 로마서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맨하탄 노방 전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타임스퀘어, Macy's 백화점 앞에서 모인다고 전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허 목사의 직장에서도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맨하탄에서 생업을 위해 일하느라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분들이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마련했으며 맨하탄 내 많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예배와 모임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이어 권면 이규본 목사(주비전교회), 축사 허준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설립보고 허장길 목사, 합심기도 정기태 목사(부노회장)로 진행 됐으며 임영건 목사(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설립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미주성결교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미주성결교회 45회 정기총회

총회장 조승수 목사 “은혜로 걸어온 50년”

미주성결교회 총회가 50주년을 맞아 "은혜로 걸어온 50년! 성결로 희망하는 100주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45회 정기총회를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신임 총회장에 조승수 목사(더버릿지교회, NY), 부총회장 김중호 목사(연합선교회, LA)와 박찬일 장로(통아일랜드교회, NY), 서기 김위만 목사(워싱턴감사교회), 부서기 김종민 목사(애틀랜타교회), 회계 정주현 장로

(면류관교회, LA) 등을 선출했다.

제45회 총회장 조승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성결교회다움", '어게인성결운동', '어게인전도운동'을 통해 성결교회 정체성을 계승해야 한다. 이미 선교회에 되어버린 이단교회를 진정한 미션교회로, 교회의 존재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서 선교적교회와 교단으로(Here and Now)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0주년을 준비하며 "2세 목회부와 협력하여 2세 교회 개척과 다음세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일, 뛰어난 선교적 콘텐츠를 가진 해외선교위원회와 더불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일, 이민의 감소와 함께 척박해지는 이민교회의 현실적 고민에 국내 선교위원회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일, 100세 시대 목회자의 은퇴와 연금의 효과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라: 김재상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237차 해외성회(237th Overseas Assembly)

1(월)~ 2(화) 대만(TAIWAN) Taipei Mission MT 주최 : 연세대학교 연부협
 3(수)~ 4(목) 대만(TAIWAN) Yaryu & Jiu Mission MT 주최 : 연세대학교 연부협

- 5(금) 오후 국제선교회(NTS)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 5(금) 저녁 오산리 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위드(With)부흥사 협의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장사무열 목사, 대표회장 정진오 목사) 010-7733-9106
- 6(토) 오전 서울 중랑구 중앙청소년센터 (대회장 장요한 목사) 010-2393-0616
- 7(주) 저녁 일산 능곡교회(조영성 목사) 010-9685-0191
- 8(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10시 정찬위원장기도회, 11시 4월 월례기도성회 장소 : 남서울중앙교회 6층 본부실
- 9(화)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한) 동서울노회 중경노회장 성회 장소 : 서울 하늘로교회(박성은 목사) 대산 엘리노회 (원장 송영선 목사) 010-2017-9874
- 9(화) 저녁 주최 : 그루티기부총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태문 목사) 010-2296-0675
- 10(수) 오후 송추 반석기도원 (원장 고관은 목사) 010-2391-3004
- 11(목) 저녁 부천 우리교회(홍은교회 (이명찬 목사) 010-7734-8291
- 12(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 14(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 13(토)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한) 서울동노회 (노회장 황규래 목사) 010-4423-2838
- 15(월)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박성은 목사) 02145-0011
- 15(월) 오후 목회자 행복전도세미나 주최 : 열방선교총회 (총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 15(월) 오후 장소 : 광덕 토브영성센터
- 17(수) 저녁 오산리 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Good TV 부흥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원준 목사) 010-7291-0291
- 18(목) 오후 서울 기독교교육방송 (사장 김우민 목사, 담임 홍성남 목사) 010-4242-5022
- 18(목) 오후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1308
- 19(금) 저녁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훈 목사) 010-3942-8434
- 19(금) 저녁 성주시합영성교회 장소 : 성주 동교회(김종현 목사) 010-2380-2024
- 20(토) 오전 Special Event Blessing
- 21(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870-5642
- 22(월) 오전 KAKAMI 제49회 목사인수식 장소 : 분당힐빌리교회(담임 김승국 목사)
- 23(화)~24(수) 천안 위대한이승호교회 (윤재민 목사) 010-3980-5991
- 24(수) 저녁 대구 축복교회(김사라 목사) 010-8696-8833
- 주최 : 그루티기부총사회(대표총재 정태문 목사) 010-2296-0675
- 포항 샘물기도원 (원장 박민정 목사) 010-3739-4442
- 파주 그레이스연수원 (원장 정영희 목사) 전곡사모세미나 010-5354-5542
- 파주 열린교회 (임은경 목사) 010-2473-8023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개포동) Fax. 02)401-7770



아주사 퍼시픽 신학교 봄학기 종강 및 환송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앞줄 가운데가 이변학기로 은퇴하는 변명혜 박사

아주사 퍼시픽 신학교 봄학기 종강 및 환송예배 섬김의 사역 이어온 변명혜 교수 은퇴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국어 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은 2024년도 봄학기 종강 및 환송예배를 16일(화)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 캠퍼스에서 가졌다. 이날 예배는 2024년도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우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변학기로 은퇴하는 변명혜 박사를 환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 교수 민종기 목사는 “변명혜 교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셨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말했다. 단 도슨 교수는 “변 교수님은 2000년부터 본교교수로 사역을 시작했

으며 2010년부터 석사과정 디렉터로 수고해주셨다. 변 교수님에게는 돌봄과 따뜻함을 나눠주는 섬김의 영이 있는 분”이라 말했다. 도슨 교수는 “변 교수님은 1980년부터 사역을 하셨다. 그의 사역은 어머니처럼 사랑을 주는 사역이었으며 비록 아주사퍼시픽대는 떠나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명혜 박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민종기 목사 설교, 단 도슨 박사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다니엘 뉴먼 박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2024 교사 강습회 개최 VBS의 올해 주제, ‘항해 시작(SET SAIL)’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of Korean Outreach Chapter, 이사장 Connie Park, 대표 여병현 목사)가 4월 20일(토) 오전 9시부터 라카나다아름다운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다. 여병현 목사는 “지난 1991년부터 시작, 펜데믹 시기를 제외한 모든 해 엘에이를 비롯, 오렌지카운티,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전역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올해는 엘에이에서 오늘 한 번만 실시한다”며,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며 어린이전도사역에 대한 후원과 기도를 당부했다.

이날 교사 강습회는 워십 1과 워십 2로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됐다. △워십 1은 “여름성경학교(VBS)에 관한 강의”로 다목적실에서 라카나다아름다운교회의 린다 문 전도사와 Grow에서 나온 에밀리 능웬(Emily Nguyen) 등이 강의했다. 이날은 특히 Grow의 VBS 교재를 중심으로 VBS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설명했다. Grow의 VBS의 올해 주제는 “항해 시작(SET

SAIL!)”으로 “영적 습관에 관한 복음서의 4일 시리즈”로 구성됐다. △워십 2는 본당에서 열렸는데 나성영락교회의 어린이부서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제시카 원 전도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끌 수 있는지에 관한 노하우를 전해주었다. 나성영락교회의 아동부의 액티비티로는 Small Groups • Choir • Scripture Reading Session • Scripture Memory Session라고 소개했으며, 매해 실시하는 이벤트는 VBS • Children's Revival • Open House • Talent Market • Hallelujah Night • Christmas Celebration이며, 이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과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강의했다. 한편 어린이전도협회에서는 오는 6월 30일(일) 오후 3시부터 7월 3일(수) 오후 3시까지 2024 에즈마이야 썸머 바이블 캠프(Ezemiah Los Angeles, Summer Bible Camp)를 페퍼다인대학교 옐킨스 강당에서 실시한다.

(박준호 기자)



린다 문 라카나다아름다운교회 전도사와 Grow의 에밀리 능웬이 2024 VBS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김도현 찬양사역자가 찬양하고 있다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김도현 찬양집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에 심겨지기를”

샌디에고 주사랑교회(담임 이요한 목사)는 김도현 찬양사역자 찬양집회를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로 지난 14일에 가졌다. 이요한 목사는 “오늘 예배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찬양사역자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노래를 만들게 하셨다. 오늘 나눠지는 노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

어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초반에만 해도 내가 만든 찬양곡을 사람들과 나누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제 삶에 긴 겨울 같은 상황이 있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변방으로 몰아주셨다. 원망도 했지만 그 기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형태가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참복음전도자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에 심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도현 찬양사역자는 ‘아버지’, ‘그 이름’, ‘예수 예수’, ‘봄’, ‘내가 주의 인을 떠나’, ‘돌베개’, ‘성령이 오셨네’, ‘그 광야로’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부교계 게시판

윤임상 목사 안수 임직 헌신예배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이자 라카마 뮤직디렉터인 윤임상 목사(한길교회) 목사안수 임직 헌신예배를 28일(주일) 오후 4시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갖는다.

▲ 문의: (323)735-0200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

제39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마당)축제”가 오는 5월 4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에 위치한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씨드교회(Seed Church)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GBC미주복음방송과 Caravan Canopy, Hanmi Bank, 오버플로잉교회(The Overflowing Church), OC한인라이온스클럽, Royal Business Bank, 세프반찬에서 특별 후원한다.

▲ 문의: (562)229-0001

12차 새사람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

GIFT 상담치유 연구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12차 새사람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가 5월11일(토)와 18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세리토스션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열린다. ‘전인적 리더십’과 성장과 치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리더십전 박사(공인 임상 심리학)와 전달훈 박사(의학박사)이며 등록금은 \$250. (모든 수익금은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살렘’ 사역에 쓰일 예정이다)

▲ 문의: (213)447-2793

LA사랑아카데미 썸머스쿨

LA사랑아카데미(원장 최영미)는 6월10일(월)부터 8월9일(금)까지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열리는 썸머스쿨 학생을 모집한다. LA사랑아카데미 썸머스쿨 위치는 LA사랑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2610 West Olympic Blvd, LA)내에 있다.

▲ 문의: (323)652-0999

이스라엘 중동 제대로 알기 특강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가 주최하고 Ahavat Elohim 이스라엘 기도회가 주관하는 이스라엘 중동 제대로 알기 특강이 ‘이스라엘, 이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주제로 29일(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스라엘 80회 이상 취재방문한 이스라엘 전문가 김종철 감독(브래드TV선교회 대표, 회복, 용서, 제3성전 영화감독)이다.

▲ 문의: (714)313-5535

4.29 폭동 32주기 LA평화 퍼레이드

World Special Federation(대표 잔강이)가 주최하는 4.29폭동 32주기 LA평화 퍼레이드가 27일(토) 오전 11시 1355 West Florence LA에서 열린다.

▲ 문의: (213)503-2007, (323)819-1799



오레곤밴쿠버한인교회연합회 주최 2024 말씀사경회에서 노진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레곤밴쿠버한인교회연합회 주최 2024 말씀사경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자”

오레곤밴쿠버한인교회연합회(회장 김일환 목사)는 2024 말씀 사경회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란 주제로 노진준 목사(순회설교자)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지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에덴장로교회(담임 원정훈 목사)와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에서 개최됐다. 13일(토) 둘째날 에덴장로교회에서 열린 저녁집회에서 노진준 목사는 ‘베드로(요 18:15-18 & 25-2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 목사는 “사람들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혹에 빠지는 길을 피하는 것”이라며 “유혹받을 줄 알면서 그길로 가는 것은 유혹이 되는 것에 애착이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은 그의 생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애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세 차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 없이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한 적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줄 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노 목사는 “우리들은 항상 수없이 흔들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기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오레곤 밴쿠버 지역 한인교회를 위해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 조환준 목사(오레곤선교교회) 축도로 마쳤다. 이번 부흥회는 첫날 에덴장로교회에서 가졌으며 마지막 날은 포틀랜드영락교회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제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영예의 대상에 다니엘 로(글짓기), 제이 리(그림)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주최 제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20일(토)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김영찬 목사는 “이번 공모전은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성장해 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체성은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가기 위한 나침반이다. 글짓기와 그림 공모전을 통해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고 큰 주역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랜디 김 밴드 찬양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남승우 목사(효사랑선교회 부대표)가 기도했으며 풀임 목사가 ‘Focus on Eternity(겔 3: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영찬 목사 환영사, 심상은 목사(OC교

협회장), 이원석 목사(OC 목사회장), 조이스 안(부에나파크 부시장)이 축사했으며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축하공연 및 시상식은 유수진 전도사가 축하공연, 레이나 강(시인), 김은미 대표(GHCA)가 심사평, 미셀박스틸 연방하원의원 축사 및 시상, 다니엘 로(11학년) 글짓기 대상 수상자 작품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정찬군 목사(예심교회 담임)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공모전에는 77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니엘 로(11학년)가 글짓기, 제이 리(10학년)가 그림 대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학생 각 1명, 심사위원상 각 2명, 장려상 16명(글짓기), 32명(그림)이 수상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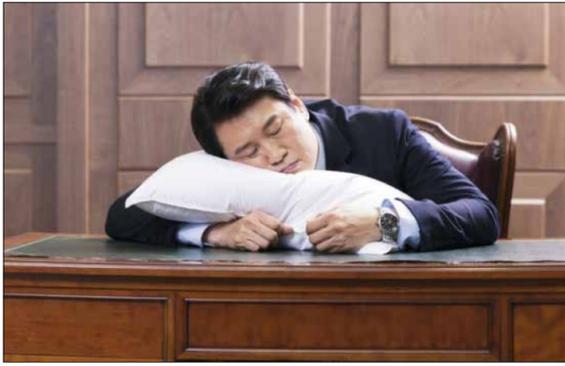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목회자 10명 중 9명 '수면 부족'

설문 10명 중 6명 "6시간도 못 잔다"

서울 신일교회 이권희(60) 목사는 평소 오전 4시에 기상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 새벽기도회를 드린 뒤엔 다시 자지 않는다. 그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자면 하루가 더 피곤하다"며 "졸음이 몰려오는 낮에 의자에서 5~10분 정도 쪽잠을 잔다"고 했다. 이 목사는 "좀 더 일찍 자면 좋겠지만 녹록지 않다"며 "월요일에도 새벽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금요일엔 저녁기도회가 있다. 노회 모임이나 심방도 주기적으로 있어서

아무리 일찍 자야 오후 10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성교회 김승리(44) 목사는 2022년 담임목사에 취임한 뒤 취침 시간이 2시간 줄었다. 매일 오전 3시50분에 기상 알람을 맞춰둔 그는 "평균 5시간씩 잔다"며 "새벽기도회 설교를 포함해 1주일에 설교 7편을 준비해야 하는데 설교 준비에만 매일 4시간을 할애한다"고 했다. 2년 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김 목사는 "잠이 부족해지면서 정신이 산만해지고 지칠 때가 많다"면서도 "은혜받고 회복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로를 이겨낸다"고 전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지난 21일까지 목회자 858명을 대상으로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문의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3.5%)이 "6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10명 중 3명(28.2%)은 "6시간 초과~7시간 이하"라고 답했는데, 목회자 10명 중 9명이 국제수면학회가 권장하는 18세 이상 성인 하루 권장 수면 시간(7시간 30분)보다 적게 자는 셈이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절대적인 수면 시간을 늘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새벽에 꼭 일어나야 한다면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윤지은 교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벽기도회 유무에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라"고 권했다. 이어 "휴일에 잠을 몰아 자는 습관도 건강에 좋지 않다"며 "취침 전 침대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낮잠이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긴 낮잠은 오히려 밤 숙면 시간을 뺏아올 수 있다. 낮잠 시간은 15~30분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비혼·저출산은 남의 얘기라는 20대 아빠의 시연

'20대 아빠의 저출산 Talk' 황선우 작가 인터뷰

합계출산율 0.778명.(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숫자다. 황선우(29) 작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다. 그는 2022년 대학 졸업 후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3년차인 그는 지난 2월 말 '딸바보' 아빠가 됐다. 황 작가는 "결혼을 일찍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 더 일찍 하고 싶었다. 저와 아내를 가정의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교제 1년이 됐을 쯤인 대학 4학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혼 습나 과정이 물론 순탄치는 않

았다. 황 작가가 "여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숫자다. 황선우(29) 작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다. 그는 2022년 대학 졸업 후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3년차인 그는 지난 2월 말 '딸바보' 아빠가 됐다. 황 작가는 "결혼을 일찍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 더 일찍 하고 싶었다. 저와 아내를 가정의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교제 1년이 됐을 쯤인 대학 4학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혼 습나 과정이 물론 순탄치는 않

그의 어머니가 삶으로 직접 보여준 신앙이 단단한 밑거름이었다. "저는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단 한 번도 부유하지 않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배웠죠. 또 교회를 다니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가치관을 확립하게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혼이 사회적 문제가 아닌 문화·유행이 된 것이다. 그는 "미디어에선 연일 결혼 생활과 육아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며 "미디어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면이 전부 아니다. 미리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갈수록 교회에서는 '혼전 동거' '혼전 순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혼전 순결을 어기거나 혼전 동거를 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엔 다자녀 가정이 유독 많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니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나아가 출산율도 올라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MZ 목회자'는 다르네

이웃교회 청년부와 친선 체육대회 열고

주일이었던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성대 상상관에 서울 연동교회(김주용 목사)와 동송교회(이광재 목사) 청년부원 120여명이 모였다.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교회 청년부원들이 마련한 친선 체육대회 현상이었다. 이날 청년들은 공넝기기를 비롯해 풋살과 발야구,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에 참여했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교회 대형전

대신 두 교회 청년부원을 한데 섞어 혼성팀을 만들었다. 식사도 대학 캠퍼스에서 함께 나눠 먹으며 우정을 나눴다. 거리가 가까운 교회라고 해서 이런 교류가 흔한 건 아니다. 국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나마 이어가던 교류도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들의 만남을 성사시킨 건 두 교회 청년부를 이끄는 'MZ 목회자'들의 의기투합 덕분이었다.

MZ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연합예배도 눈길을 끈다.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와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부평구 삼산교회(이시백 목사)와 부평중부교회(신경석 목사) 선일교회(오병성 목사) 청년부가 주인공들이다. 코로나를 거치며 위축된 교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청년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았다. 예배는 세 교회 MZ 목회자들이 합심해 지난해 10월 삼산교회에서 처음 드렸다. 이들 교회 청년들은 예배 후 퀴즈와 게임에 참여하며 친교했다. 이들 교회의 연합예배는 다음 달 19일 부평중앙교회에서 또 진행된다. 지상하(39) 삼산교회 청년부 목사는 "교인이 많지 않은 중소형 교회의 경우 청년부 자체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여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공감대는 지역 연합예배를 함께 준비할 수 있었다"며 "지역교회와 교류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보며 도전받고 부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중독 원스톱 지원...

교계 "200만 중독자 회복의 날까지"

국내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마약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교계는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을 비롯해 치료, 시설지원 등 원스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교계에 따르면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이사장 이선민)는 최근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에서 발대식을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중호 판사를 비롯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 원장 등 법·정·관계 인사들과 김성권(대양교회) 박종원(전주초성교회) 김호진(수영로교회) 김병호(수영로교회) 박형석(수영로교회) 유진성(해운대순복음교회) 조현석(해운대선일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가수 범키는 특별 찬양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앞선 발대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김호진 목사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를 위해 친구 4명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다"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 발대식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중풍 환자의 친구와 같이 마약 중독자들의 친구가 돼 회복과 치유와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마약중독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연구소 발대식을 기점으로 200만 마약 중독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회가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마약중독자 치료 시설은 유해나 혐오 시설이 아니다"라며 "증증하는 마약중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 시설을 기피하는 '담비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펼친다. 우선 발대식 이후 매주 화요일 12주간 마약중독이 질병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또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입소형 재활센터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계가 마약 중독 회복을 위해 나선 건 지속해서 증증하는 마약류 사범 동향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3488명으로 집계됐다.



'기독교의원들, 기독교 가치관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기독교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역주 목사)가 기독교의원들을 향해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국회의원 당선인 29%가 개신교인...' '악법 지지 방과제 될 것' (국민일보 4월 18일자 33면 참조)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기독교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21일 논평에 따르면 언론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경제와 민생의 내치(內治)는 물론, 외교 안보 국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비극이 되며 하

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기독교의원들이 무늬만 신앙인이면 안 된다"며 성경 속 정치에 참여했던 요셉 다니엘 등의 인물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원들은 자신들이 이 시대에 쓰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언론회는 "제22대 국회에 부름 받은 기독교의원들은 비록 당을 달리하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 달라"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 서고, 서로 간에 협치와 상생을 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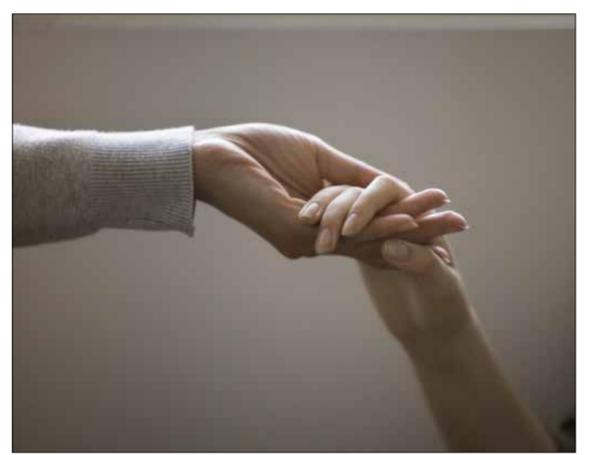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 서고, 서로 간에 협치와 상생을 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라이프호프, 자살이 발생했다면...

목회자, 유가족·성도 긴급 돌봄 이렇게

자살 사안이 발생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긴급목회돌봄 매뉴얼이 나왔다.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자살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교회 내 자살 이슈에 올바른 대응법을 담은 '제22대 목회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대표 조성돈 교수)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목회자를 위한 자살 예방교육 긴급목회돌봄 매뉴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중현 목사)이 주관하고 라이프호프, 한국기독교목회자원네트워크가 함께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라이프호프와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 한국목회상담협회가 공동으로 자살예방 특강 자료를 개발해 목회자가 직접 성도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살 사안 이후 돌봄 매뉴얼도 제작해 한국교

회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긴급목회돌봄은 자살 사건 이후 교인과 신앙 공동체를 돕기 위한 위기 개입 시스템이다.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돼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과 교인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목회 방식이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자살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예민한 주제였다. 그 과정에서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목회자와 교인에게 정죄를 당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다. 아울러 생활고에 시달리는 목회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긴급목회돌봄 매뉴얼에는 자살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부터 자살 이후 24시간 내에 목회자와 교회가 대응해야 하는 방법(표 참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자살사건 경우 파악부터 당회 보고, 긴급목회돌봄위



구성, 교회 내 공식 안내문 작성, 유족 접촉 및 지원, 언론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생명모듬이 목회자'를 주제로 강연한 김주선 라이프호프 국장은 "성경이 자살을 죄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무작정 정죄하기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세세하게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설명했다. 안해용 라이프호프 사무총장은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인과 교

회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며 "자살은 교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주지만 목회자는 리더의 자리에서 성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살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매뉴얼을 기반으로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중심에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ssion 선교의 창 (23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구조개신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연구자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60세에 다다랐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 2022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세라고 했다.

그는 100여 년 전에 공적 연금에 가입했던 노동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제도가 유지



건강하고 활력이 있다면 직장 에서 계속 일하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도 20세기 후반에 설정된 규례와 관습에 묶여 있다.

의 바이든("Joe" Biden)은 현재 직무를 거뜬히 보고 있다. 만일 그가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은퇴 나이는 87세가 된다.

5. 구조적 제도 갱신

첫째 일원화이다. "젊어서는 열심히 일해 저축하고 늙어서는 연금과 저축한 것으로 일하지 말고 놀아라." 는 산업구조는 마땅치 않다.

다. 청년들이 구지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탐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젊은이들은 자기 은사를 따라 창의적으로 미래를 열어가야지 철 밭통처럼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면 소망이 없다.

맺음 말

나이 들어가는 것이 죄인가? 부끄러운 일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고 했다.

인간수명의 연장은 부담스런 일이 아니라 축복이다. 칼로 무 자르듯 일괄적으로 은퇴기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의 신체리듬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도 합당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대로, 시니어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많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차원에서 모두가 만족할 대안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각자의 영양음식, 자기 관리, 주거수준 등이 크게 향상된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2. 은퇴 연령에 대한 로렌스 D. 핑크의 경고

3/26일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의 회장인 로렌스 핑크(Laurence Douglas Fink)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적정 은퇴 연령의 기준을 65세로 여기는 것은 미쳤다. 65세가 적절한 은퇴 연령이라는 기준은 오스만 제국(1299~1922년) 시절 유래했다.

1. 인간의 기대수명 변화와 원인

인류의 기대 수명 얼마나 될까? 이는 지난 200년간 빠르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1840년대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 초 반대에 불과했다. 1900년대 초 평균 기대수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고령화 추세가 연금 고갈 속도를 이미 따라 잡았다고 여긴다. 이런 가운데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고령화 사회의 실태

미국은 법정 정년이가 없다.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4. 고령에도 왕성한 역할을 한 사람들

고령의 나이에 인간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60대에도 스케치를 했고, 톨스토이는 70대까지 소설을 썼으며, 미켈란젤로는 80대에 작품을 조각했다.

높고 병들지 않는 한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은퇴 시 기이다. 핑크 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60대 이상을 은퇴 대상자가 아닌 경력 노동자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이는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키웠지만 10명의 자녀는 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있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2강 옷니엘, 드보라, 바락, 에훗 그리고 기드온 (1) (사사기 1-8장)

모세가 신명기에서만 수 없이 반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유언은 (신 4:1,2,5,6,14,40, 5:1,6-21,33, 6:1-9,24,25, 7:11,12, 8:6, 10:12,13, 11:1,13,18-22,32, 12:1,3,2, 15:4,5, 17:18-20, 27:1,10, 28:9,13, 29:9, 30:1-20, 31:10-13, 32:45-47) 여호수아서를 통해 반복되었습니다(수 1:7,8, 22:5, 23:6).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이은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두고 살아내는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비참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서를 부분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사 1:1)로 시작하지만 갈렙의 전투를 포함한 유다 족속의 전쟁(사 1:2-19)과 요셉 가문의 전쟁(사 1:22-29)을 포함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정찰을 위한 전쟁을 치르지 않은 7지파가 정착 전쟁을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이끌던 전투에서 가나안에서의 승기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진멸을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유다와 요셉 족속의 전쟁 기록에서 보았듯이 '진멸 전쟁에 실패'합니다. 성

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만'(사 1:19,22)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사 1:19,21,27,29,30,31,33).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묻어서 전쟁을 하는데(사 1:3,17) 유다 지파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고(사 1:19) 단 지파는 쫓기지만 했으며(사 1:34) 잇사갈 지파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갈렙은 노인의 몸이었음에도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고 정착을 위

한 마무리 전쟁 중에 하나님은 '진멸하고 몰아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곳은 가나안이므로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 습니다(사 1:27,30,33,35).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울무가 되리라

여호수아서 뒷부분부터 사사기 앞부분의 기록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보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사 2:1-3).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로 삼고 그들의 신

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울무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와 사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운다(사 2:4). 왜 울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운 것은 자신들에게 닥칠 '어려움'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삶'은 아직도 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up and down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여언이(수 24:31, 사 2:7) 이곳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 2:10)는 말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부흥하는 신자 (시 92:1-15) 찬 26장

시인은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번성할 수 밖에 없음을 찬미합니다. 무엇이 흥왕하는 근거이며 어떻게 흥왕합니까? 첫째, 주의 인자와 성실이 부흥의 근거입니다. 1-5절에 보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한 진실이 절대 흥왕하는 근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이끄시는 그 분이 언제나 사랑과 성실의 원천인 성경으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흥왕하는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뿔을 높이 드시고 악인의 보응을 목도하여 마침내 망하게 하시는 궁극적 승리가 성도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넘치고 잎이 청청한 나무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됩시다.

화 와서 예배하자 (시 95:1-11) 찬 8장

본문은 창조주인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합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첫째, 예배대상. 땅의 모든 것, 높은 산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죄에서 구하여 우리를 "그의 양",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방법. 그에게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예배하며 최고의 예술인 시, 찬양, 노래

와 즐거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트리바와 맛사에서의 불순종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배결과. 참 예배는 미혹을 이길 수 있고 겸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별미같은 복을 받게 합니다. 열심히 주께 나아가 경배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가 됩시다.

수 여호와를 예배할 이유 (시96:1-13) 찬 409장

본문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의 성품 때문에 예배합니다.(6-7) 새 노래와 거룩한 예물로, 존귀와 위엄으로 예배해야 하며, 능력과 이름 다음으로 예배하라고 권합니다. 성소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성품에 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 때문에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요 1:14) 둘째, 그분만이 신이기 때문입니다.(6)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입니다

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참신에게 돌릴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독일무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새 노래와 예물과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의의 통치를 인하여 경배합니다. 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10)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분명한 이유를 알고 경배합니다.

목 여호와와 통치 (시 97:1-12) 찬 428장

97편은 여호와와 통치 결과를 생각하며 찬양하려고 말합니다. 그의 통치가 어떠한가에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 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좌의 기초가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통치의 근본이란 뜻입니다. 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둘째, 그 나라의 통치 영향은 만물에 미칩니다

다.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밟은 땅이 떨며 밀같이 녹아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악을 미워해야 하며 그의 거룩한 역사를 기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의가 지배하는 가정을 꿈꾸며 그의 의의 기초위에 서서 참된 영광을 누리는 찬양의 삶을 영위합니다.

금 참 예배 (시99:1-9) 찬441장

참 예배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히 그를 찬양하며 예배할까요?(6)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1-2)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구체적으로 신자의 영에 성령을 보내셔서 연합함으로 성령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고전12:13) 이 기쁨 부으심이 그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친히 가르치십니다. 둘째, 의와 공의를 사랑해야 합니다.(3-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여 먼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분 앞에서의 선과 의만이 참 만족을 갖게 합니다. 셋째, 선지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6-9) 모세, 아론, 사무엘 같은 참된 예배자의 본은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어떤 때든지 참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토 영가를 부르는 사람들 (시 100:1-5) 찬 544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즐거이 노래하며 온 땅으로 그를 찬송하라고 권합니다.(1-2,4) 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 주님과 깊은 연합 때문에 노래해야 합니다. 그분과 신자는 부자관계며(우리 하나님), 창조자와 피조물관계며(우리의 지으신 자), "주종관계며(그의 것), 군신관계며(그의 백성) 목자와 양의 관계(그의 기르시는 양) 이기에 하나님 생명관계입니다. 이 연합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둘째, 그만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노래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은혜의 근원입니다. 선과 사랑과 성실은 그를 떠나서는 결코 논할 수 없습니다. 그 분에게 신자의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천이신 그분을 생각할 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항상 그 분께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계 3:20)

교회음악 이야기(57)

부활찬송 Lancashire - The Day of Resurrection



윤임상 교수
(월미션대학교대학원)

필립 양시나, C.S. 루이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체스터턴(G. K Chesterton 1874-1936)이 쓴 책 "Orthodox, 정통"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끝없는 욕망이 있고 자유롭기 때문에 같은 것이 반복되고 거듭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항상 '또 해봐, Do it again'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보다 더 의욕적이고 지칠 줄 모르신다. 매일 아침 태양을 향해 '또 해봐'라고 말씀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늙어가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젊으셔서 '또 해봐'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놀라운 것은 때 순간 크고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에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직, 간접적으로 나누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주는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 28:6 여기서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직접 목도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인도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곳은 분명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합니다. 부활에 관한 찬송 중 "부활 찬송 Lancashire - The Day of Resurrection"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7세기 그리스 다마스쿠스의 성자 요한 (St John of Damascus 675 or 676-749)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부활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쓴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영국 성공회 프리스트, 찬송 작가인 존 메이슨 닐 (John M. Neale, 1818-1866) 이 1862년 번역을 해서 당시 영국의 교회음악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였던 헨리 스마트(Henry T. Smart, 1813-1879) 가 작곡을 하여 부활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소재로 2014년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메리 맥도널드(Mary McDonald, 1956-)가 "부활 찬송(The Day of Resurrection)으로 안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곡을 보면 화려한 팡파르와 오프닝 합창이 무뎠을 이기신 우리 구세주의 승리를 알립니다. 마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듯한 모습으로 리듬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서서히 돌문이 열리는 현장을 연상케 하는 전주를 보여 줍니다. 이어서 조성을 격상하여 (Bb-C) 헨리의 찬송을 등장시켜 부활의 축제를 펼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조성을 상승시켜(C-D) 2번째 절을 대입하여 데스칸트의 화려함을 첨가하고 회중을 초대하여 부활의 축제를 온 회중들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주의 멜로디를 다시 등장시켜 화려한 팡파르를 울리며 부활의 축제를 종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사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

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 전쟁 이후에 나타나 유행했던 다다이즘(Dadaism)이라는 하나의 철학적 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을 거쳐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이룬 예술 운동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사조입니다. 이 예술 운동은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인한 살육과 파괴에 대한 증오와 냉소를 기본 정신으로 해서 여러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문화적 가치, 전통적 가치, 그리고 이성적 신뢰를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술 형식의 파괴와 무가치함을 주장하여 현존하는 모든 미적 가치를 없애려 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 시인인 폴 엘뤼아르(Paul Eluard, 1895-1952)입니다. 그가 쓴 글귀 중 "Hope is raises no dust(소망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의미심장하고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듯한데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 그대로 먼지와 같은 뿌연 연기를 퍼뜨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 그 사건을 오늘날 현대문명이 주는 화려함과 세련됨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진실이 이 다다이즘의 사조처럼 혹시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부활 신앙이 애매모호 하지는 않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탈 진실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대화 시킴으로 개인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애매해하거나 추상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즉 복음의 절대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성을 믿는 우리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그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려는 어리석음 또한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그 복음을 담고 나를 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인자한 얼굴로 내게 미소를 지으며 "Do it again, 또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오늘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중심이 되는 일상의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iyoa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필리핀

복음의 나팔수

1. 공선교사 무릎 수술 4월 17일

저희 부부가 지난 2월 16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방문하였는데 모두 8개 병원이었습니다. 대학 병원이 2개였고 나머지 6개는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월 중순에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이 정상화되지 않아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월에 선교지를 출발할 때는 4~5개월을 예상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 공선교사는 지난 1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병원에서 가능하면 65세 이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는 데 공선교사 무릎의 연골이 다 닳았고, 걷기에 아프고 불편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병원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웰튼 병원입니다. 웰튼 병원은 우리 집에서 가깝고 인공관절 수술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4월 17일에 한쪽 무릎을 수술하고, 4월 24일에 다른 쪽 무릎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수술 후에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여 걷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2. 공선교사 5월 28일 용종 수술

저희 부부가 4월 1일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공선교사는 큰 용종이 발견되어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작은 병원은 수술하기 어렵다며 대학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이대서울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할 환자들이 밀려 있어 공선교사는 5월 28일에 수술을 하기로 예약하였습니다. 열악한 선교지에 오래 있다가 보니 수술할 곳이 늘어 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3. 새희망 학교 소식

저희부부가 운영하는 새희망 학교는 미션 스쿨이며,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조회 시간에 전체 예배가 있고, 매일 수업 시간 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과목 시간이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초등학교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여름성경학교(VBS)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예배 시간에는 평소보다 더욱 학생들이 적게 출석하였습니다. 림빠빠 마을에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시부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납치되어 한 명은 죽었고, 몇 명은 실종된 소식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 예배에 보내

때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심한 건기 때에는 잠보양가 도시의 시내도 이틀마다 잠깐씩만 물을 나눠주는 제한 급수를 하고 있고, 전기기도 매일 자주 나갑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정전도 없고 물도 아무때나 계속해서 나오니 아주 편함을 느낍니다.

4. 현탁이 직장 출근

필리핀의 남부 잠보양가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온 현탁이

지난 2월, 한국에 오기 전에 선교지의 집 주인에게 집세와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비, 학교 선생들 월급 4개월 치를 맡기고 왔습니다. 6월 초에는 저 혼자만 선교지에 잠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학교 졸업식과 새학기를 준비해야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합니다. 2024년 올해는 선교지에 있는 시간보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하나님을 늘 선교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



지 않았습니. 필리핀의 지난 정권 때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하게 정치를 하여 납치, 마약이 줄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느슨해지는지 다시 납치 소식이 다시 들려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나와 있기에 상관이 없지만, 선교지에 있을 때 납치 사건이 터지면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선교지는 요즘 건기 중의 건기로 몹시 더운 날씨입니다. 민다나오 잠보양가 지역 평균 기온이 35도인데 요즘에는 42도가 까지 올라가다 보니 너무 더워 수업을 여러 날 때 못하고 있습니다. 새희망 학교에는 물이 말라서 우물 펌프에서 물이 겨우 나오는데 깨끗하지 않아 그냥 학교 청소할

가 지난 2월 21일에 서울 경희대학교 약과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없는 외진 잠보양가 도시에서 태어나 부모 말고는 한국 사람을 볼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한국에 안식년으로 와서 선교지로 돌아가려 하면 선교지로 돌아가길 싫어하며 늘 울었던 현탁이 모습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도 마치고 새 직장을 얻어 4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막내 준탁이는 대학교 3학년인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5. 선교지 임시 방문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공선교사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2. 공선교사 무릎 수술 후에 재활을 잘 할 수 있도록
3. 새희망 학교에서 예배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4. 새희망 학교의 졸업식 준비와 새 학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5. 현탁이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오정윤 / 공윤자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

▲ 종족명 키부부 나가 종족

▲ 인구 약 25,600명

▲ 종교 불교 80%, 민속 종교 18.5%, 복음화율 1.5%

▲ 복음매체 신약 번역됨(1998),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파일 마니푸르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중 하나로 자신을 우이포우라 부른다. 종족 정체성을 무시당하고 동족과 타 종족들로부터 주변 종족에 포함시키려는 억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오고 있다. 현재는 관련 법적 기관이 개별 종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 기도제목

1.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키부부나가족이 신약을 읽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도 깨닫고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2. 번역된 성경과 복음 매체가 활발히 사용되어서 키부부나가족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3.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한인교회 동역자 청빙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Seeking Positions to Fill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실 동역자를 청빙합니다.

청빙 대상

1. EM 교육부 전임 부목사 1명 (자격: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 해외 파송 선교사 1명 (자격: 5년 이상 헌신 가능자)
3. 주일 1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 1명 (자격: 유경험자)

지원 서류

1. 이력서 (사진 부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별도의 가족사진)
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신앙고백 및 소명관 사역 경험에 관한 항목을 필히 기재)
3. 추천서 2부 (현재 출석 교회의 담임목사, 존경하는 목원자 각 1부씩)

접수 및 문의

1. 모든 지원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kcocoffice2@gmail.com)
2.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E-mail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cocoffice2@gmail.com)
3.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은 개별 통지합니다.(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사례비에 대한 내용은 면접 시 알려드립니다.
5. EM 교육부 전임 부목사 사례는 담임목회자 수준으로 대우함

접수 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Application deadline: Until May 31, 2024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Senior Pastor: Joshua Nam) is seeking co-workers to work together for the kingdom of God.

Positions

1. Full-time associate pastor for EM Department of Education (Qualification: seminary graduate)
2. Overseas missionary (Qualifications: Those who can devote more than 5 years)
3. Choir director for the first Sunday worship service (Qualification: Experienced)

Supporting documents

1. Resume (attach photo, enter contact phone number, family photo)
2. Self-introduction (be sure to include self-introduction, faith statement including the call to ministry and ministry experience)
3.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one from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you currently attend and one from a pastor you respect)

Contact and inquiries

1. All application documents are accepted only by email. (kcocoffice2@gmail.com)
2. Recommendations must be sent directly by email from the pastors.(kcocoffice2@gmail.com)
3. After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interview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ested).
4. Salary will be discussed during the interview.
5. Full-time associate pastor for EM Department of Education's salary comparable to senior pastor salar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www.kcoc.com / 714-893-1652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유럽목회연구원 세미나 29회 개최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최복이 이사(본주). 고광중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단의 유혹에 깊이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단들은 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기성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신앙 생활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규 목사는 "제자들은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선언을 받은 제자들이었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게 되자,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평소에는 죽는 자리까지 동행하겠다고 제자들이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고기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흥강사로 활동하는 윤원선 목사는 믿음을 크게 강조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발휘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리더는 백 사람에게, 또 어떤 지도자는 천 사람, 만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수십만에 영향을 끼친다. 내가 성장하고 계발될 때,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고로 우리 자신의 의식을 계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소명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복이 본주 이사장은 "현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견디어 내야 했다"며 "심지어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설거지를 3년 동안 묵묵히 감당해야 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본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임을 믿고, 이윤의 일부분을 선교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나서는 기업은 아주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 이사장은 "이런 기업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만 이틀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3박4일 동안 부근을 여행했다. 이때야말로, 선교사들이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

혼자서 살아오던 심적 병들이 치료되고 영적 활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 비가 내렸지만 시르미오네(simione) 섬을 방문하였다. 섬에는 성악가로 유명한 마리아 칼라스가 살았던 저택이 있었다. 다음날에는 아름다운 돌로미티를 구경했다. 그곳은 르네상스 시대 유명한 화가 티치아노(Tiziano1488-1576)가 출생한 곳으로 절경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니 완전 설국이었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4월 중순인데도 전혀 녹지 않은 하얀 눈을 보며 우리의 영적 속 사람도 흠과 티가 없는 눈처럼 희게 되기를 소망했다. 아름다운 곳을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일은 그동안 목회나 선교로 복잡했던 마음을 털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영적 자양분을 삼아, 현장에 돌아가 복음 사역에 뜨겁게 헌신하는 동기가 될 것을 믿는다.

내년이 30주년인데 벌써 그 날이 기다려진다.

지난 4월 8일-13일 오전까지 유럽목회 선교연구원(원장, 한평우 목사)의 세미나(29회)가 이태리 파도바의 Four Point By Sheraton Hotel에서 13개국, 97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파도바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Petrarca1304-1374)가 말년을 보낸 역사적인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페사로(Pesaro)는 칼빈이 방문했던 도시요, 중세 해상 무역으로 명성을 드높였고 십자군을 파송했던 베니스가 지척이다.

이런 역사적인 지역에서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통하여 큰 도전을 받았다. 감사로는 고광중 목사(인천성산교회), 노상규 목사(상내백교회), 윤원선 목사(성림교회), 이여백 목사(주사랑선교회),



유럽목회선교연구원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를 주로 믿었으면 구원이 성취되었고, 연약하여 비록 넘어졌다. 해도 한번 받은 구원에는 변화가 없는 데도, 확실하지 못함으로 유혹받는다"며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은 성취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고로, 이미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잡이로 나선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찾아가셨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섬겨주셨다. 그 섬김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자리까지 끝낼 수 있었다. 고로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아

또한 경험해야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여백 목사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해 강의하며 그것을 위해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의식의 변화를 이룰 때, 선한 영향력을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집사람, 잡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의 실수에 더해서 보내고 받는 문자를 통한 실수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터에 오늘 후배 동역

자로부터 반가운 문안 카톡을 받으면서 더욱 실감했습니다. 아끼고 있는 후배 동역자로부터 문안 카톡을 받고 고맙고 반가운 나머지 저도 곧바로 답

을 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사모님이 감기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사모님이 좀 좋아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물론 "집사람"이라고 입력을 하려 했는데 실수로 자판이 잘못 터치되어서 입력이 "집"이 "잡"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답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분이 건넨 말입니다. "그런 것이야 이해하고 넘어가줘야지요."

그야 물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요. 하지만 손끝 잘못 눌러서 "집사람"이 "잡사람" 되었다는 것에서 그저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름에 보신탕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신탕집을 찾은 목사님들에게 주문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 손드세요." 그러자 목사님 한분이 "나 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개 손 드세요"라는 말에 "나도", "너도", "나도" 하고 대답하자 주문을 받는 사람이 "개 열개, 맞죠?"라고 확인을 하자, 목사님들이 이의 없이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목사님들은 자신들을 졸지에 개로 둔갑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웃지만, 부지중에 우리



가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나 크고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며 사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격을 격하시키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도 격하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짐승만도 못하다"고 한다면 시비가 붙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자칫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며 그저 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괴로워 마음이 짘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기오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3)."

2024년 일본선교 세미나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

아직도 전체 인구의 1% 이하만이 예수님을 믿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들이 없는 무목 교회가 많다는 아픈 현실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아직도 존재하는 감정적 현해탄을 복음으로 건너는 마음으로 일본 선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일본 무목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선교에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이 귀한 세미나에 초청 합니다.



강사: 박영기 선교사

일본선교 40년, 삿포르 지역에 8개의 일본교회 개척,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본부장을 역임

날짜: 2024년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식사 제공)

장소: 남가주든든한교회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참석 대상

일본선교에 관심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특히 은퇴목회자들 환영)

등록: 등록비는 없지만 미리 등록 요청

주최: SEED 선교회(562-926-4700, seedwo@gmail.com)

협력: 남가주든든한교회(김홍철목사, 213-481-2779),

남가주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협의회

등록

SEED

